

『장자』의 리더십으로 통찰하는 21세기 세계화와 다문화의 이슈*

— 어떻게 소통하고, 생명의식을 회복할 것인가

金松姬**

<目 次>

1. 서론
2. 다문화주의 현황과 春秋戰國時代의 배경
 - 1) 다문화주의 개념과 현황
 - 2) 21세기 세계화와 춘추전국시대의 배경
3. 『莊子』의 통찰력으로 보는 다문화주의
 - 1) 다문화주의와 단일민족국가의 세계관
 - 2) 시대적 정서를 읽는 통찰력
 - 3) 세계화와 『莊子』의 생명의식
4. 다문화주의의 이슈와 『莊子』의 리더십
 - 1) 경쟁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묻는 리더십
 - 2) 정직과 德의 리더십
 - 3) 『莊子』가 말하는 수용의 리더십
 - 4) ‘天人合一’, 민심과 소통하는 『莊子』의 리더십
4. 결론

1. 서론

21세기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나라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군다나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의 구조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 이 논문은 2016년 8월 6일 중앙대 동아시아 비교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문장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인문과 예술경영 연구소

수 없는 사회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세계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각국마다 문화적 민감성과 충돌, 의사소통, 상호관계의 어려움을 기초로 한 다양한 문제점에 부딪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사회는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지만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21세기 다문화주의는 '경제적인 효과'와 '경쟁력'에 집중되어 있어 인간의 생명의식과 행복은 상실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고전 『莊子』의 리더십과 통찰력을 통해 세계화와 다문화 이슈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莊子』에서는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리더십을 보였던 것일까? 전국(戰國)시대 말기 약소국이었던 송(宋)은 강대한 여러 나라의 위협에 직면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도대체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력과 생명력으로 견뎌내야 했을까? 『莊子』는 철저히 세상의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 승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이 되고, 통치자의 관점이 아니라 서민의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하지만 사사로운 시비나 편견은 외면한다. 더러는 유머와 해학적으로, 더러는 비유나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만, 저항할 것은 철저히 저항했다. 『莊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간 삶의 회복에 있고 화합에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莊子』는 상당히 예민하게 현실을 관망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며 어떻게 처연히 살아야하는지를 통찰하는 사상서임에 틀림이 없다. 어느 한 편의 지식이나 편견에 묶인다면 화합은 불가능할 일이다. 세상에 대해 예리하게 보고 듣고 통찰한다는 것은 깊은 사색 안에서만 가능할 일이며, 리더십의 가장 기초적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결혼이주자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낯선 한국에 와서 부딪치는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터전을 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고, 출발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말하는 한국의 다문화 개념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복잡해졌다. 그것은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하니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맞아들이라'며 수용력과 포용력을 강조하

고 있다. 물론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외국인 문제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에 초점이 기울어질 것이며, 동시에 복지, 교육문제를 놓고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적으로 표방하는 '다문화'란 개념 뒤에는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자연스런 진행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독선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승자독식 사회구조가 강해지고, 지극히 인간적이던 정(情)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한국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남북한 문제는 더 대치되고, 자국민 문제보다 '세계화'와 '다문화'란 개념과 관련된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부유해진 재벌들은 많지만, 2016년 국민들 부채는 이미 1,200조를 넘어섰고, 남의 나라에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라지만 정작 해외입양문제에 대해선 6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좌와 우, 보수와 진보 형식으로 편 가르기에 바빴고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부재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런 문제는 결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다. 다문화주의를 앞서 시도한 다른 국가들의 장점과 실패 사례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莊子』가 보여주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의 다문화와 그와 병행되는 세계화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시점의 이슈와 현황에 대해 고전으로 재조명할 때, 반드시 『莊子』에 대한 고증을 토대로, 거기서 나온 이론, 학설과 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찰 없이 기원전 4세기의 『莊子』에 대한 관념¹⁾을 단순히 21세기의 어휘와 관점으로 풀어간다면 논증을 제시해야 할 논문으로 보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세계화, 또는 한류현상과 같은 긍정적인

1) 勞思光에 의하면 “馬徐倫이 만든 莊子年表에서는 莊子の 생존연대를 B.C.369~B.C.286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 학설이 비록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史記』와 일치된다.”고 한다.

부분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부딪치는 이슈, 즉 문화적 민감성, 소통, 상호관계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한국의 다문화담론, 다문화 사회와 같은 자연스런 과정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다문화주의를 추진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지나치게 억지스럽게 정형화되고, 문화적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한국이 다문화주의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주자의 정치, 경제, 문화적, 복지부분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란 측면은 없는지, 그것이 조금 더 많은 민중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내국인이 수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 전개로 이어져 있는데,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의 서민은 전란으로 생활고를 처절히 감당해야 했던 춘추전국시대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함께 병행되는 21세기 다문화의 이슈에 대해서 『莊子』 리더십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세계화와 21세기 다문화 이슈 가운데 발생된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어떻게 민심과 소통하고 어떻게 인간의 생명 의식을 회복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다문화주의 현황과 春秋戰國時代의 배경

1) 다문화주의 개념과 현황

한국은 반이민 국가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동질화의 압력이 강한 사회이며, '순혈'에 대한 강박을 바탕으로 전근대적 인종주의가 움직이는 사회다. 게다가 다문화주의는 유럽과 미국에서 퇴조하고 있는 정치철학이다.²⁾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까닭에 놀라운 속도로 주된 담론이 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하나의 문화나 언어로 통

2) 오경석, 「한국적 다문화주의, 또 하나의 새마을 운동」,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5호』, 2009년 12월.

합 또는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운동,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짐짓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분할통치 방식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내적 분열과 인종적 서열차를 조장한다.³⁾ 다문화 사회란 ‘다름’과 ‘평등’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평등을 이유로 동화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이다.⁴⁾ 그러나 기이할 정도로 과열된 다문화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쟁력이나 경제적인 효과를 앞세운 것임⁵⁾에는 틀림이 없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외적으로는 문화를 표방하지만 모든 인간과 문화를 서열화 시키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결코 행복이 보장될 수 없는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발전이라고 하지만 그 발전이 정작 대다수의 서민에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21세기 세계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까닭이다. 신자유주의 논리와 함께 진행된 21세기 세계화, 2000년이 되었을 때 가장 부유한 나라의 1인당 GDP는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140배가 커졌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집권이후부터,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졌다.

미국만 보더라도 “호레이셔 앨저(Horatio Alger, 가난한 소년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주로 쓴 아동문학가-옮긴이)는 이제 죽었다” 2012년 <데일리 비스트(Daily Beast)>지의 한 헤드라인은 이렇게 발표했고⁶⁾, 미국에서 신분상승이 종식되었음

3) 다문화주의에 의해 선진국 출신 이주자와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와 비국적 취득 이주자 사이의 격차와 위계는 더욱 엄격하고 뚜렷해진다.

4) 오경석, 『한국적 다문화주의, 또 하나의 새마을 운동』,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5호』, 2009년 12월.

5)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년.

6) “Horatio Alger Is Dead?”: David Frum, “Horatio Alger Is Dead?”, Daily Beast, Feb. 9, 2012(noting that upward mobility has declined among men but not women)의 내용을 Amy Chua & Jed Rubenfeld, 『The Triple Package』, Penguin Books, 2015년, 167쪽에서 재인용.

을 알리는 기사들이 도처에 눈에 띈다.⁷⁾ 이것은 더 이상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도 가장 먼저 대처리즘을 추진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었지만, 영국이 2016년 EU를 탈퇴하면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데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담감과 자국민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압박감이 컸기 때문에 드러난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세계화가 거의 모든 나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줬을 물론,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빈곤과 기아, 환경, 인권, 난민, 핵 확산과 테러의 문제는 날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처럼 ‘무관심의 세계화’도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생명존중, 연민은 사라져가고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행복할 권리를 차츰 상실해가고 있다.

2) 21세기 세계화와 춘추전국시대의 배경

孟子는 춘추 시대를 평하기를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서 邪說과 폭행이 난무하며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던 때라고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성의 매몰, 도의의 타락, 인륜 질서의 파괴, 사회 기강의 해이로 말미암은, 이른바 ‘亂世’현상이라는 진단이다. 흔히 ‘의식이 죽어야 예의를 안다’고 해서 물질과 도덕의 관계를 좋게 보기도 한다. 그러나 물질 생산이 풍부해서 물자가 많아진다고 해도 그것의 분배가 고르지 못할 때는 계급 간에 더욱 큰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 국가 간의 쟁탈을 유도하여 전쟁까지 유발하게 된다.⁹⁾ 『韓非子』의 「亡徵」을 보면 “신하들은 儒와 墨의 학문만을 닦고,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변설만 좋아하며 상인들은 재화를 국외에 쌓아두고 서민들은 곤궁할 경우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¹⁰⁾”라고 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들은 전쟁의 승리가 우선이었고,

7) Amy Chua & Jed Rubenfeld, 『The Triple Package』, Penguin Books, 2015년, 167쪽 참조.

8) 서창록, 「협력과 공존의 뉴 패러다임, 글로벌 거버넌스」, 『고대 TODAY』, 2010년 가을, 42호.

9) 김충열 지음, 『노장철학 강의』, 예문서원, 48쪽 참조.

정작 승리하고 나면 민생과 민심을 챙기기보다 자신들의 이권이 우선시되었던 시대다.

춘추 말의 사회 혼란은 물질 분배로 인한 사회 국가의 격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탐욕의 확대는 인간의 본성을 망쳐서 인간을 포악스럽게 만드는데 21세기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움과 매우 흡사하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의 과정은 아무리 미화시키고 정당화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의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이고, 그 핵심은 '돈'과 '물질'에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 자본가들이 노동자와 서민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다는 사실이다. 노골적인 정리해고를 비롯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철도·전력·통신·수도 등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해주었다. 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대량 해고와 노동의 강화, 일반 국민들에게는 각종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¹¹⁾ 특히 제3세계에서의 공공기관 민영화는 대부분 거대한 자금을 보유한 해외자본에 매각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가속화시키는 활로가 되고 있다. 이때 국가나 정부가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란 아무것도 없다.¹²⁾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21세기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의 경우도 삼성 이진희 회장의 재산상 순위는 세계 100위 안에 들지만 정작 국가부채는 1,200조이며

10) “群臣爲學，門子好辯，商賈外積，小民內困者，可亡也.”

11) 임재창, 「신자유주의 등장-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 『Economist』, 2011년 4월16일 참조. 사례를 보자. 2016년 한국의 여름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자연 재해에 해당할 만한 일이었다. 이 때 한전의 누진세로 인해서 과다한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 세대들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야 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임직원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였고, 실제 수익의 대부분은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들어갔다. 2016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배당금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약 6348억원을 배당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 법안의 타당성만을 내세우며 누진세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묻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다.

12) 줄고, 『팍스 아메리카의 침묵』, 198쪽 참조.

행복지수는 OECD 꼴찌이고, 자살 순위는 1위이며,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해를 거듭해간다. 그런데 세계화와 나란히 함께 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는 범죄로서 확연히 드러나지만 거대 자본가들이 법의 저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일에 대해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돈이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되고, '부'의 척도가 되는 한 상상불허의 범죄는 도의심과 윤리성을 삼켜버린 채 세계화 안에서 비일비재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2003년 데르버는 『원 월드-세계적 폭력에서 사회적 세계화까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상위 200개 기업이 세계 전체 특허의 90%를 갖고 있다. 이들이 식량 대부분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판매한다.....무엇보다도 전 국가의 무기창고에 가득한 대부분의 무기를 생산한 장본인이 바로 이들이다.¹³⁾”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관리의 수도 늘어야 하고, 전쟁을 하려면 군대도 많아야 하며, 많은 물자를 모으고 옮기려면 상인이나 세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 결국 실질 생산자는 줄어들고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고 관리하는 계급만 늘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량이 늘어서 경제의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생산의 직접 담당자인 이른바 소농(小農) 계급은 자기들의 생산물을 국가의 세금이나 관리들의 착취 등과 같은 공식·비공식 경로에 의하여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다.¹⁴⁾ 고생스럽게 일을 해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재화란 없고 늘 불공평한 상황만 벌어졌던 것이다.

동시에 「胠篋」편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知者란 큰도둑을 위해 물건을 모아두는 자가 아닌가? 혹은 소위 聖人이란 큰 도둑을 위해 물건을 지키는 자가 아닌가?¹⁵⁾” 상당한 지식을 가진 지식인도 인의를 갖춘 성인도 결국은 큰 도둑을 위해 계획을 짜주고 그 당위성과 명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다했다는 것으로 그 한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세상은 작은 도둑을 잡는데 급급하지 큰 도둑은 언제나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 때 현실에 대

13) 페테르 빈터호프 슈프르크 지음, 배영자 옮김, 『바벨탑에 갇힌 세계화』, 21세기 북스, 53쪽 참조.

14) 김중열 지음, 『노장철학 강의』, 예문서원, 157쪽 참조.

15) “故嘗試論之，世俗所謂知者，有不爲大盜積者乎？所謂聖者，有不爲大盜守者乎？”

한 『莊子』의 비판은 매우 통렬하고 신랄하다.

「肱篋」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로부터 볼 때 착한 사람도 聖人の 道를 모르면 설 수 없고, 도척도 성인의 도를 모르고는 행할 수가 없다.¹⁶⁾” 이런 표현은 분명히 단순하고 과격하지만 저자는 도둑질의 존재가 성인 계층의 통치와 유관하다는 점을 지적하니 매우 대담하고 날카롭다.¹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駢拇」편에서는 “무릇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이 본 것만을 본다거나, 자기 스스로 얻지 못하고 남이 얻은 것만을 얻는다는 것은, 남이 얻은 것을 얻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 얻지 못한 것이요, 남의 만족에 그대로 따를 뿐이지 제 만족을 자기 스스로 갖지 못하는 것이다. 도대체 남의 만족만 만족해하고 스스로의 만족은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록 도척과 백이의 차별은 있을지라도 다 같이 바깥의 사물에 본성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¹⁸⁾”고 말한다. 천하의 사람들이 본래의 자기 모습을 잊고 바깥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겨 노예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말이다. 그 노예로 만든 대상이 仁義를 말한 경우엔 군자라 일컬어져 존경받고, 재물을 말하는 경우엔 小人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이 둘을 구별해본들 무슨 뜻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큰 도둑이 계획하는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인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주는 역할을 결국 군자로 존경받는 인물들이 해내었으니 ‘도둑’이란 점에선 그 차이가 없다는 말은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1세기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라는 상관 여부를 배제할 수가 없다. 재벌, 극소수의 금융세력, 대기업 등이 우월한 입장에 서는 측이고 특권을 누리는 반면 열등한 입장에 서는 측은 더 많은 복종과 의무를 요구받는다. 이 때 다문화를 정치화시켜서 그들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안을 짜주는 역할에 일조를 더해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영국계 기업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대형로펌이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를 맡은 S대 조교수에게만 모든 책임을 미루다

16) “由是觀之，善人不得聖人之道不立，跖不得聖人之道不行。”

17) 리우샤오간 저, 최진석 옮김, 『莊子哲學』, 소나무, 1998년, 405쪽 참조.

18) “夫不自見而見彼，夫自得而得彼者，是得人之得而不自得其得者也，適人之適而不自適其適者也。夫適人之適而不自適其適，雖盜跖與伯夷，是同爲淫僻也。”

결국 2016년 5월 여론이 격양되자 옥시 측에서 사과와 보상문제를 거론한 일이 있다. 이것은 다문화주의와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사회의 뒷면에 엄연히 드러나는 그늘이다.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숙고와 토의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여기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패한 민주 정부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부패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가 나가면 더 악한 자가 들어선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한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상태로 전락한다.¹⁹⁾

3. 『莊子』의 통찰력으로 보는 다문화주의

1) 다문화주의와 단일민족국가의 세계관

『胠篋』편을 보면 『莊子』의 세계관이 나온다. “이 때에 백성들은 노끈을 맺어 문자로 썼고, 먹는 밥은 맛있게 여겼으며 입는 옷은 아름답다고 여겼고, 풍속을 즐기며 거처는 편안히 여겼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와는 경계를 잇대어 있어 닭소리 개소리가 서로 들려왔고, 백성들은 늙어서 죽도록 서로 오고가지 않았다. 이런 시대야말로 참으로 세상이 잘 다스려졌다고 말할 수 있다.²⁰⁾” 이 글을 통해 『莊子』에서는 인간이 헛된 지혜만을 좇고, 이익을 추구하여 어느 곳도 편할 할 새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윗사람이 지혜만 좋아하고 道가 없으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관리의 수도 늘어야 하고, 전쟁을 하려면 군대도

19) 헨리 조지 지음, 김원상 옮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205~206쪽 참조.

20) “當是時也，民結繩而用之，甘其食，美其腹，樂其俗，安其居。鄰國相望，雞狗之音相聞，民至老死而不相往來，若此之時，則至治已。”

많아야 하며, 많은 물자를 모으고 옮기려면 상인이나 세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老子の 논리와도 상통한다. 즉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안엔 탐욕이 생기게 마련이고 과도한 이윤추구를 위해 지식과 기술력이 있는 인재 찾기 위해 혈안이 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작은 규모부터 섬세하게 챙기는 노력의 중요성, 당장 내 이웃의 울타리에서부터 의식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말이다.

지금은 21세기다. '다문화 담론'을 펼치는데 여전히 20세기 논리로만 펼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결혼, 인권이나 외국 노동자 차별에 그쳐지는 문제도 아니다. 21세기 다문화주의는 전체적으로 다른 이슈로 접근해야 할 만큼 복잡한 구조와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국인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것, 대학의 입학 정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자를 단시간에 급속히 늘리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비정규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면서 대기업 임원들에겐 십 수 억 원의 연봉을 챙겨주는 재벌들의 모습은²¹⁾ 사회 최악의 모순적 구조를 가중시키는 일이다. 또한 이주자들이 한국에 와서 받는 생활적 어려움, 가령 미등록 아동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다른 외모로 인해 차별받는 사회 구조는 여전하다. 그러나 내국인이 이주자들의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국인에게 가야할 복지 예산이 자연스레 줄어들고 다문화 예산과 복지로 흘러가는 경우 등의 역차별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란 사회적 균형을 맞춰가야 하며, 정당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복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물품과 동등한 조건을 갖는다면 오랜 시간 자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온 내국인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일이다. 대학 또한 교육부 지시로 인해 해외의 학생들 유치에 바빠졌지만 정작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 대학 내는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 관리가 부실해져가는 것이

21) 송윤경 기자, "'구조조정' 초래해놓고 십 수억원의 연봉 챙겨간 재벌 임원들", 『경향신문』, 2016년 7월 12일.

현실적 문제다. 무엇보다도 취업이 어려워지고 노동의 권리를 압박받고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왜 굳이 다문화주의로 가야하는가? 단일민족국가보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물론 '세계화'는 모든 나라의 자발적인 의지와 세계적 흐름이었다. 그리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도 발휘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화'의 구호를 가속화하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대외적인 구호 뒤에 숨어있는 그늘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화적 장점을 떠올릴 수 있을까? 첫째, 협동심과 단결력을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위기에 대처하는 열정이 있다. 1998년 IMF가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은 뽕뽕 뭉쳐 금을 모아 IMF와 같은 힘겨운 상황을 견뎌냈고 그것은 우리 한민족만의 고유한 민족정신 덕분이었다.²²⁾ 그런데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나란히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은 좌와 우를 나누며 소통이 어려워졌고, 인간으로서 생명의식을 누리며 살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둘째, 한국인들에겐 따뜻한 정, 이웃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정서가 있었다. 그런데 21세기 신자유주의와 함께하면서 경쟁심리로 인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고 있다. 사실 이런 감정, 연민은 莊子에서 말하는 物化, 神化의 정신경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신경계는 깊은 사색에 이르는 坐忘이 있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쉼의 시간이 없어지고 목적만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 정작 인간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는 유가적 전통으로 인해 순종의 미덕이 있었다. 그런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계급화·서열화가 강해지면서 정작 순종의 미덕은 사라지고 복종만 난무한다. 사회의 강자에게 약자가, 부유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복종해야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다. 사회지도층의 리더십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정확히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1프로의 개념에는 돈의 의미 말고는 없다. 순종과 복종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한국인 전통적

22) 참고, 『팩스 아메리카의 침묵』, 들어가는 말 참조.

위계질서의 미덕도 동시에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서 잠시 「변무」편을 통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다. “아래로는 감히 지나치게 편협된 행동은 하지 않는다.”²³⁾ 자기의 본성,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고 노예적인 삶인 까닭이다.

한국처럼 민족적 결속력이 강한 나라가 외국의 이주자로 노동자를 대체할 경우, 국민적 통합과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²⁴⁾ 지나치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정작 가까워야 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정작 한국인은 아직 한국인인 것인지 의문스럽다. 적절한 경쟁은 삶의 활력이 되고 생동감과 역동성을 준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결국 자멸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

2) 시대적 정서를 읽는 통찰력

莊子は 난세에서의 인간관계, 특히 권력 계층 안에서의 지식인의 지위와 운명에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莊子와 그의 후학들이 『莊子』를 왜 썼느냐 하는 저술 동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당시 제자들은 각자의 문호를 폐쇄하고 남의 주장과 학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극단적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학파 간에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학술계의 분열과 혼란을 화합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자』 이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天下」편 첫머리의 의미를 옮겨 보기로 한다.

그 뒤로 천하는 크게 어지러워져 성인과 현인의 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도덕이 또한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천하의 학자들은 대개 도의 한 부분만을 보고 스스로 옳다고 했다. 이를테면 귀와 눈과 입과 코가 제각기 분명한 바가 있어서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또 기술을 가진 여러 사람이 제각기 장기가 있어서, 때를 따라 쓰이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를 갖추어 두루 하지 못하는, 한 부분에 얽매인 사람과 같았던 것이다. (중략) 슬프다, 저 百家들은 제 소견으로 달려가기만 해서 그 근본으로 돌

23) “而下不敢爲淫僻之行也.”

24) 줄고, 『팩스 아메리카의 침묵』, 2014년, 194~195쪽 참조.

아울 줄을 모르므로 그것은 반드시 도에 합할 수가 없을 것이다.²⁵⁾

이렇게 당시 학계의 불행한 사태를 통감한 莊子는 儒家, 法家 등의 제자백가 철학 사상이 가진 한계를 비판했다. 그래서 莊子는 老子를 이어받아 이 난세의 분열상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도와 하나가 되는(逍遙爲一)' 생명의식을 가지고 자유로이 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장자의 철학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극도로 혼란한 시대적 아픔 안에서 녹아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시대를 통찰하고 민중의 시대적 정서를 읽기위해서는 학문적 융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지나친 편견과 시비로서 언쟁이 끊이지 않으면 화합과 통합은 어렵다. 현대 민주주의 아래서도 많은 저항을 잇어가고 생명의식을 상실해가게 된 것은 지도자와 지식인들의 사색 없는 일의 추진, 민주적 방식의 소통과 대화 없이 급작스럽게 일이 통보되고 추진되는 까닭이다. 넓게 멀리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지금까지 선진 경제를 중심으로 지식의 범위와 본질, 역할을 한쪽 모퉁이에서 분석하는 데 급급해왔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정작 필요한 학문은 분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편견이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통찰력은 결국 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게 됨으로서 인간의 구속받는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인간의 자유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세계화와 『莊子』의 생명의식

그렇다면 세계화를 『莊子』로서 통찰하는 것은 어떤 의의를 가져오는가? 그것

25) 天下大亂, 賢聖不明, 道德不一, 天下多得一察焉以自好. 譬如耳目鼻口, 皆有所明, 不能相通, 猶百家衆技也, 皆有所長, 時有所用, 雖然, 不該不備, 一曲之士也. 悲夫, 百家往而不反, 必不合矣!

26) 즐고, 『팩스 아메리카의 침묵』, 들어가는 말 참조.

은 세계화 과정에서 인간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生命意識에 대해 깊이 사고하게 한다. 세상 안에서 귀하게 생각되는 많은 것들, 부귀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에 사로잡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족쇄를 차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있으니 세상의 제도나 체제, 규율이 어그러져있을 경우 꼼짝없이 그 족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어도 살아있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는 삶이다. 세계화가 시장논리에 의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것은 서열화 되고 있다. 삶 안에 적절한 긴장이란 좋은 것이지만 지독하게 긴장시키는 경쟁은 인간의 영과 육을 죽이는 일이다.

잠시 莊子の 「齊物論」 편에서 지금의 세상을 통찰해보자.

말을 하는 태도 그 빠르기가 화살을 쏘듯 한다는 것은 시비를 잘 가리는 사람을 두고 일컬음이요, 딱 잡아떼는 것이 무슨 맹세나 하듯 하는 것은 자기 고집으로 남을 이기려 드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들이 날로 기운이 쇠약해가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초목이 말라 시들투와 같다. 이런 사람들이 물욕에 빠지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또 굳이 입을 봉해 깨맨 듯이 감춘다는 것은 늙어서도 욕심이 많아진 사람을 일컬음이니 죽음에 가까워진 마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²⁷⁾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말했던 莊子에게서 그 생명의식을 살펴보자. “생명의식(生命意識)이란 현실생활 중에 느끼는 고민이나 우울한 비애감 안에 간혀있는 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을 체험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특별한 심적 상태로 승화하는 것을 말한다.²⁸⁾ 새의 본성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며 자유로운 생명력을 드러내는 법이고, 물고기의 본성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는 법이다.²⁹⁾ 이 시대가 외면한 인간의 생명의식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고 답이다.

27) 其發若機括也，其司是非之謂也，其留如詛盟，其守勝之謂也，其殺若秋冬，以言其日消也，其溺之所爲之，不可使復之也，其厭也如緘，以言其老洫也，近死之心，莫使復陽也。

28) 참고, 『莊子』與漢代文學, 北京大博士學位論文, 2003년 5월, 47쪽 참조.

29) 참고, 『陶淵明 시를 통해서 본 莊子의 生命意識』, 『中國文化研究 4집』, 2004년 6월, 56쪽의 내용을 참고, 『팩스 아메리카의 침묵』, 58쪽에 재인용.

그럼에도 지금의 가정·사회·국가·세계는 가장 비정상적인 것을 향해 무언가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점에 이르렀다. 살아있다는 것은 生命이란 단어와 상통한다. 살아있는 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 인간이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의식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어떤 희망과 꿈을 추구한다. 사회와 국가는 국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사상, 철학적 가치 안에서 그 욕망을 풀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관습과 제도, 체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안의 내면을 깊이 만나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齊物論」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다함을 향하여 가는 것이 달리는 것과 같아도 이를 그치게 할 수 없으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평생을 고생만 해도 그 성공을 보지 못하고, 지치고 시달려서 어디를 돌아갈 바를 모르고 있으니 슬픈 일이 아닌가.³⁰⁾” 장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을 깊이 드러낸다. 그것이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간의 경계와 차별을 드러내지 않는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살이가 갈등과 대립으로 고뇌롭게 되는 까닭은, 결국 명예와 실리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이다. 아무런 사욕이나 사심 없이, 또 고집함도 없이 도리를 따라서 대응함은, 마치 새가 허공을 날더라도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과 더불어 지내더라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지는 실제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³¹⁾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거짓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참된 지혜는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적 분별에서 해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분별하거나 분석하면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진행하면서 일치체를 이루어가야

30) 終身役役而不見其成功。茶然疲役而不知其所歸。可不哀邪!

31) 김항배, 『莊子哲學精神』, 불광출판부, 125~126쪽 참조.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정부, 세계화, 다문화로 이어져갈수록 작은 규모, 작은 집단, 약한 것, 미미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신분제에 대한 미묘한 세계가 구축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분법적 차별이 심해졌다. 춘추전국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莊子哲學이 해결하려고 하는 중심 문제는 평범한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하여 정신적인 자유를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그의 정서에는 따뜻함과 배려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莊子는 평민들의 대변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질량보존의 법칙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행복해지면 누군가가 그 순간 불행한 것이고 내가 불행해지면 누군가가 그 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적이 늘어나고, 내가 이기는 순간 누군가는 패배의 아픔을 맛보아야 한다. 다문화추세도 표면적으로는 사회화합, 통합, 동화와 수용을 말하지만, 인위적인 가속화와 수용은 어느 누군가는 패배하고 뒤처지고 상실감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남게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지배로 이어지게 된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가 지닌 고유의 문화와 정서, 추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발전과 개혁, 혁신을 위한 구조, 경쟁과 승자독식 구조에서 추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곧 동심을 상실해간다는 의미이고, 동심의 상실은 곧 인간의 생명의식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莊子·人間世』에서 말한 것처럼 천진한 아이처럼 된다거나, 하늘과 벗이 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³²⁾ 그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통로인 까닭이다.

32) 若然者，人謂之童子，是之謂與天爲徒。

4. 다문화주의 이슈와 『장자』의 리더십

1) 경쟁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묻는 리더십

세계화와 다문화가 가속화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과열되었다. 더 섬세하고 새로움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치열한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홍보와 마케팅에 기를 쓰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노래하며 콘텐츠 개발에 바쁘다. 모든 분야의 技巧는 나날이 더 심해지고 本質은 맥없이 스러져간다. 온통 실적이라는 미명하에 숫자로 서열화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모두가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이나 그야말로 창의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어느 것이 이권에 도움이 되는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구조를 통해 온전히 숫자와 평가의 잣대로 모든 것을 나열한다는 것은 부정적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莊子』의 말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田子方」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송나라의 원군이 그림을 그리게 하였을 때 많은 화공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절하고 일어나 곧 붓을 활기도 하고 먹을 갈아보기도 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방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반이나 되었다. 한 화공이 늦게 도착했으나 그 태도는 아주 태연하여 서둘지 않고 절하고는 그대로 멈춰 서지도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살펴보게 했더니 그는 옷을 벗고 두 다리를 내 뻗은 채 알몸으로 쉬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원군은 ‘그야말로 참된 화공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³³⁾”

내면을 충실하게 한 자는 평가받기 위해 기교적인 문제에 마음을 쓰지 않으니, 至人은 속세의 평가나 상식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는 死生과 존재적 가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몸을 티끌이나 먼지처럼 여기며 마음을 사물의 근원에서 노닐게 하여 지극한 아름다움과 지극한 즐거움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

33) 宋元君將畫圖，衆史皆至。受揖而立，舐筆和墨。在外者半，有一史後至者，儻然不趨。受揖不立，因之舍。公使人視之，則解衣槃礴贏。君曰：“可矣，是真畫者也。”

다면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는 것, 그런 것을 격려하거나 두둔하려는 말이 아니다. 더군다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세상과 외면하여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와 신념은 있고, 평가라는 시스템을 통해 특정인의 시선을 받아 권력을 찾으려는 것을 지양하지는 것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사람에겐 부유함, 출세, 권력, 명예, 존귀함, 아름다움, 건강함과 같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서 좋고 나쁨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고 서열을 정한다.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인식방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평가하는 심사기준에 들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도 물론 훌륭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결국 극소수 누군가의 눈에 든다는 것에 불과한 일이며 그런 일은 결국 2016년 여름에 발생했던 조영남 그림의 대작 사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누군가가 작품에 시선을 주었을 때 그 그림이 권력이 되는 것, 그것이 꼭 예술이란 것과 연결이 되는지 의문점이 생길 일이다. 예술은 예술이고, 학문은 학문이다. 서열화되고 평가받기 위해 저울질 되는데서 그쳐질 문제가 아니다.

21세기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로 인한 지나친 서열화와 경쟁은 오히려 인간의 육신을 고되고 피로하게 만든다. 코어니 CK니 이름도 알 수 없는 플랜에 맞추어 대학의 연구지원 신청은 난무해가지만 정작 학문은 사라져간다. 연구지원비가 없으면 학문적 성과를 드러내기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학문과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든 학자가 도리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열화 되어서 소위 순위 안에 들거나 상위 1%의 경계선에 드는 일은 행복의 본질과 연결되는 일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莊子』가 적절히 꼬집은 말처럼 손에 움켜진 것이 무엇이든 언제든 놓을 수 있는 자세가 있으면 본질과 근원은 찾아가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일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정당한 동기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 가서 처음의 동기와 목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성급한 마음이 앞서서, 자연의 도리를 무시하

고, 사욕에 흐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을 상실한 것이다. 즉 「繕性」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말에도 ‘물을 위하여 自己를 망치고 俗을 위하여 本性을 잃은 사람, 이것을 일러 안과 밖의 가치를 거꾸로 보는 倒置之 백성이라 한다.’고 한 것이다.³⁴⁾” 치열한 경쟁이 불러일으키는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안에 자리 잡는 서열화로 인해 인간의 가치와 신념은 획일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2) 정직과 德의 리더십

한국이 다문화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수용력과 포용력을 배우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민자들의 개척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 따라서 이민자 간의 유대와 법질서가 강화되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사회를 형성하고 산다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며 그 안에는 엄청난 진통과 갈등이 따르는 일이란 것을 그들이 역사 안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흑인 고위공직자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을 비롯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³⁵⁾”고 말해왔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미국사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가? 하버드 로스쿨 노아 펠드먼 교수는 “유대인들은 유대계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그들의 공동체에서 잘 합류시키지 않는다.³⁶⁾”고 말하면서 미국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기까지 한인들의 이민 역사 150년의 피와 땀, 고통을 받치고 난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에 오르려면 그 나라의 법과 잣대에 의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재로서 손색없는 인품과 도덕성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새롭게 충원되는 이민자들에 대해 포용력 있게 보이는

34) 故曰: “喪己於物, 失性於俗者, 謂之倒置之民.”

35) 강준만 지음, 『미국사 산책 17』, 인물과 사상사, 2010년, 148쪽 참조.

36) Noah Feldman, “Orthodox Paradox”,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007년 7월 22일.

것은 그 사회와 국가가 훌륭한 인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고위공직의 통로가 아주 좁을지라도 반드시 열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도덕적 자질과 인격, 정직성에 위배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미국인도 예외가 없다.³⁷⁾ 이민자를 받을 때 국가가 보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예의로, 이런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과거 로마인은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철저히 양보했다. 여기서 로마인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핵심은 정복민이 피정복민에게 기회를 주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자국의 안정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확실한 법적 규제와 질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직하고 청렴한 사회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그렇지도 않은 구조 속에서 “나라 안의 人才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며.....외래의 기우자가 출세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³⁹⁾”라고 한 韓非子의 말에서 교훈을 얻을 일이다.

몇 년 전, 모 여성 이주민 국회의원의 학력 거짓 발언에 대한 의혹은 기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에게 제기되는 꼭 같은 잣대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왜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버렸을까?⁴⁰⁾ 더군다나 한국은 지나친 경쟁구조를 갖춘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굽고 탄탄한 동아줄을 하나 부여잡은 사람이 그 줄 하나를 잡고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주자이든 내국인이든 공직자를 뽑는 기강과 규준은 확실한 일관성이 필요한 일이다. 고위 공직자를 뽑는데 이주자 출신이라고 해서 잣대 자체가 달라질 이유와 명분은 없다. 정직과 德은 리더십의 가장 기초적 덕목인 까닭이다.

「人間世」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무릇 마음이 곧은 사람은 하늘과

37) 참고, 『세계를 향한 한국교육』, 249~250쪽 참조.

38) 참고, 『세계를 향한 한국교육-교육을 넘어 행복으로』, 251쪽 참조.

39) 「亡徵」: “境內之僕不事, 而求封外之士, 不以攻伐課試, 而好以名問舉錯, 羈旅起貴, 以陵故常者, 可亡也.”

40) 김남주 기자, “김영명 교수 ‘다문화가 단일민족보다 나올 것 없다’”, 『The Asian』, 2012년 7월 19일.

벗이 된다고 합니다. 하늘과 짝이 되는 이라면 천자와 자기 자신이 다 같은 아들임을 알 테니, 어찌 자기의 말을 임금이 옳다고 하든 옳지 않다고 하든 상관이었습니까? 그런 이를 일러 천진한 아이와 같다고 하고, 또 하늘과 벗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⁴¹⁾ 여기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란 천자, 군주의 생각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절대적 복종을 말하지 않는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늘의 섭리, 민중의 뜻에 달렸다고 보는 관점이며, 이러한 의미는 『장자』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결국 인간의 正直과 德⁴²⁾이라는 인품으로 흘러나온다고 볼 수 있다.

3) 『莊子』가 말하는 수용의 리더십

무언가를 수용한다는 것에는 인내와 이품을 동반한다. 내면적 충돌과 갈등을 인정하고 처절한 아픔과 절망, 고통을 극복하고 난 후에 가능한 말이다. 다문화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통합이 어렵고 갈등이 드러날 때마다 특히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갈등을 드러내는 국민을 향해 꾸짖듯 하는 말이다. 그런데 수용이란 그리 쉬운 말이 아니다.

莊子が 순리에 순명하는 즉, 莊子の 아내가 죽었을 때 초연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적으로는 통절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⁴³⁾ 그럼에도 봄·여름·가을·겨울이 오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봄과 여름은 사실 청명하다, 가을의 화려한 단풍잎으로 짝 찬 山水를 보고 있노라면 그 현란함에 감동받는다. 그런데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노라면 이 겨울나무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앙상하고 불품없어 보이는 초라한 나무, 그러나 그런 나무를 한참동안 들여다보고

41) 回曰：“內直者，與天爲徒，與天爲徒者，知天子之與已皆天之所子，而獨以己言蘄乎而人善之，蘄乎而人不善之邪？若然者，人謂之童子，是之謂與天爲徒。”

42) 「天地」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德人이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없고, 행동을 해도 계획이 없으며, 옳고 그른 것이나 좋고 나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두지 않는다. 온천하와 이익을 같이하는데 이것을 편안함이라 하며, 명해서 어린애가 그 어머니를 잃은 듯하고”(曰：“德人者，居無思，行無慮，不藏是非美惡，四海之內功利之之謂悅。”)라고 하여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절묘하다.

43) 「天下」篇.

있다면, 정말 송고한 철학을 발견하게 된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대로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인다.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추위에 고스란히 그 시린 겨울을 보낸다.⁴⁴⁾ 그렇게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하던 겨울을 보낼수록 이듬해 가을 단풍은 더 찬란하고 아름답다. 농염하다.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일에서의 수용조차도 결코 순탄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정책적인 것으로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것을 수용하는 입장이란 상당 시간 타협을 잃은 비이성의 단계를 거쳐야하는 것은 숙명적이다. 대단한 인내를 말하며忍耐란 심장을 칼로 찢리고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이 처절한 고통을 대가로 내놓아야하는 과정이다. 다민족 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어려움은 결국 이민자들과 내국인들 간의 소통문제다. 「逍遙遊」편을 보면 宋나라 사람이 장보라는 관을 많이 가지고 越나라로 장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은 단발에다가 몸에는 먹물로 그림을 그리고 지냈다. 따라서 문명한 사람이 쓰는 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문화적 이질감과 괴리감이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된 글이다. 편견과 차이는 굉장한 균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미 갈등과 균열이 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란 말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위협적으로도 들릴 수도 있는 얘기다.

따라서 소통이 되어가는 과정에선 언어와 문화적 이해가 기본인데 그러기엔 정말 많은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莊子』의 '言不盡意'라는 말처럼 언어로서 그 뜻을 다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사람들 간에 소통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도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서의 수용력을 얘기하는 경우 TV에서 다민족 간의 공동 출연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력들, 기관장이나 단체장으로 활동하는 소수민족인들에 대한 미국의 수용력을 얘기하지만 사실 내면에는 엄청난 갈등이 늘 내재하고 있다.

21세기 다문화주의 안에서 사람들의 사고는 매우 다양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상식도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논의의 과정은

44) 줄고, 『세계를 향한 한국교육』, 288쪽 참조.

매우 절실하다. 그래야 나중에 그 결과가 설혹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대중적 수용과 민심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과 수용은 리더십의 덕목이지 일방적으로 군중이 좇아야 할 덕목은 아니다. 수용의 미덕은 지도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지도자의 편견으로 인한 팽팽한 긴장과 완고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악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仁과 義, 禮와 忠으로서 리더십을 미화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선의의 군중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기 까닭이다. 『莊子』에서 끊임없이 상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을 제시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4) ‘天人合一’, 민심과 소통하는 『莊子』의 리더십

어떤 爲政者도 나라에 대한 근심 없이 일하진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리를 펴나가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상당한 자존심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설혹 완전한 정치를 했거나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와 결실이 있는지 여부는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나 가능할 일이다. 깊은 사색과 방관자적 입장에서 돌아보게 되면 어떤 大業을 이루었던 인물일지라도 반성되지 않는 일이란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선택도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유익함도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점도 동시에 공존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리더 일수록 자신을 반성, 회고하기 위해 깊은 사색의 시간은 필연이다.

여기서 잠시 莊子의 「天地篇」을 살펴보자. 땀을 뻘뻘 흘리며 물둥이에 물을 길어 올리는 노인이 말하길 “나는 스승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소. 기계를 쓰게 되면 반드시 기교로운 일이 생기고 기교로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교로운 마음이 생기며, 기교로운 마음이 가슴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의 참됨이 없고 마음의 참됨이 없으면 그 정신이 편안하지 못하며, 그 정신이 편안하지 못하면 도에 고요히 살 수 없다 하였소.”⁴⁵⁾ 또 말하기를 “반드시 공리나 智巧따위는 반드시 그의 마음에서 떠

45) 爲圃者忿然作色而笑曰：“吾聞之吾師，有機械者必有機事，有機事者必機心，機心存於胸中，則純白不備，則神生不定，神生不定者，道之所不載也。”

났을 것이다..... 비록 온 천하가 칭찬하여 그 말이 행하여져도 거만스럽게 돌아보지 않고, 온 천하가 그르다고 하여 그 말이 행해지지 않아도 조금도 마음에 걸려하지 않는다.46)”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평정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색해야 하는가? 여기서 莊子의 齋戒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의 齋戒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며, 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氣로써 듣는 것이다. 귀는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고, 마음은 일에 부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氣란, 텅 비운 채 무심히 사물을 기다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道란,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우는 것을 모으는 것이고, 비워낸다는 것이 곧 心齋인 것이다.47)”

그 뜻은 마음을 한 곳에 전념한다는 것이며,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나서야 비로소 천지의 본래로 돌아가게 된다는 坐忘을 일컫는다.48) 이 시대로 말하자면 남의 말이나 인터넷 혹은 언론이 주도하는 생각을 좇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에 머무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때에 그 고요함과 평온함 안에서 비로소 자연과 완전한 일체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깊은 사색은 반성과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통로이며 지도자들에게 필수적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통찰력과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이 나올 수 있으며, 그것은 곧 天人合一과 민심을 바로 읽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든 출세, 권력이든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에 집착하면 민심을 살피거나 삶을 살아가는 본질과는 멀어지는 법이니 사회적 관계,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이치는 인간의 생명의식과 멀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자유, 행복과도 멀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살

46) 功利機巧必忘夫人之心..... 若夫人者..... 雖以天下譽之, 得其所謂, 警然不顧, 以天下非之, 夫其所謂, 儻然不守, 天下之非譽, 無益損焉, 是謂全德之人哉!

47) 「人間世」: “回曰: ‘敢問心齋.’ 仲尼曰: ‘若一志, 無聽之以耳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而聽之以氣! 聽止於耳, 心止於符. 氣也者, 虛而待物者也, 唯道集虛. 虛者, 心齋也.’”

48) 줄고, 『陶淵明 詩를 통해 본 莊子의 生命意識』, 『中國文化研究4』, 中國文化研究學會, 2004년 63~64쪽 참조.

수 있으려면 莊子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천지자연과의 정신적 교류를 추구하고, 사람과 자연이 道의 경지에서 융합되어 혼연일치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⁴⁹⁾ 그렇다면 莊子가 설명하고 있는 '物化'의 완전한 정신 경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물과 일치를 이루는 자유로움을 얻으려면 내면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과 집착, 그리고 생각의 일체를 비워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자연과 잇닿아 완전히 일치를 이룰 때 인간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장자는 텅 비고 고요하며 내면의 바다 깊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虛靜'의 정신 경계를 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허정'의 정신 경계에 도달하려면 '心齊', '坐忘'의 체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 이때는 이미 주체적인 존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莊子가 말하는 物化의 경지인 것으로, 곧 '神化'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경계가 21세기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이슈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일까?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사, 적어도 타인의 일을 자기 자신처럼 비춰보는 자세는 사람과 사람간의 공감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기를 거울 들여다보듯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면 사람은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이 중심일 수 있는 근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齊物論」편의 '胡蝶夢'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사람과의 교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겐 최고의 대목일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 '자아'에 대한 중심만이 전부가 아니라 남의 고통이나 고난과 교감하는 의미의 컴패션(compassion)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동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일수록 깊이 생각하고 하늘의 섭리 민심을 읽는 섭리, '天一合一'을 생각하려면 깊은 사색을 통한 맑고 투명한 정신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중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가슴이 아파야 하듯, 내 국민이 아프면 내 가슴도 아파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莊子』의 리더십에서 '物化'

49) 참고, 『세계를 향한 한국교육』, 304~305쪽 참조.

의 정신경계를 통해, 사소한 是非나 편견을 버리려는 것은 정말 자연의 순리가 무엇이고 천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다.

5. 결론

21세기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주도하에 재벌, 기업, 대학의 필요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강행되어 가는 부분이 많다. 소통과 배려의 인간관계, 수용력과 포용력을 얘기하지만 뒤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회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잠시 쉬를 갖고, 내부적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이주자들과 내국인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법률, 복지, 교육이 기본인데 이에 대한 연구진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문화주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속화시키려는 것은 국내에 상호관계의 균열, 의사소통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으며 사회 안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편견과 차별이란 모든 문화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 『莊子』의 '井中之蛙'의 이야기는 단지 우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던 상식만이 상식일 뿐, 그 생각과 관념을 떠나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선 문화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주자에 대한 수용성과 배려를 가지려면 국내 경제적 안정과 분배의 균형이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어떤 원칙과 규준이 정확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지도층이 정직과 덕을 솔선수범해 보여줘야 한다. 물론 사람을 지배하는 데는 군사력과 돈으로 복종시킬 수는 있으나⁵⁰⁾ 이주자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도 부족하면서 내국인들에게 무조건 이주민에 대한 수용력과 배려하라고 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회적

50) 엘렌 H. 브라운 지음, 이재황 옮김, 『달러』, AK, 2009년, 88쪽 참조.

약자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심어주고 이주자에 대한 분노와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莊子』에서 말하는 ‘虛靜’과 ‘物化’의 정신경계를 통해 지도층의 깊은 사색과 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논의하는 과정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21세기 신자유주의 구조 하에서 자기 이권과 이해관계,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구조에서 이주민을 더 많이 받겠다는 인위적인 시스템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많은 균열과 신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莊子』는 시대적 정서를 읽는 통찰력, 다문화주의가 단일민족국가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세계관, 경쟁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리더십, 天人合一을 통한 民心과 소통하는 리더십, 자연과의 합일에서 배우며 수용력의 의미를 알려주는 리더십, 정직과 덕의 리더십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서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에서 놓치고 가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공감,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시장논리에 의해 주도되었던 다문화주의는 지나치게 급하게 진행되었고 민주적 토의와 절차가 생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한국은 순혈주의 단일민족국가. 남북한의 대치관계로 애국이 매우 강조되는 민족이고 국가다. 그런 나라가 체계적인 준비와 절차 없이 다민족, 다문화주의로 강행하는 이유, 그것이 정말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것인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준비 없이 이주자를 받는 문제로 인해 이주자는 물론 내국인에게 과생되는 어려움과 정서를 챙기는 일에는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답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거대자본가의 이윤에 집중하는 신자유주의 구조로 국민부채 1,200조로 신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발견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감, 생명의를 상실시킨다. 그렇다면 그 지점은 바로 유턴할 필요가 있는 극점을 의미한다.

넷째, 『莊子』에서 끊임없이 ‘天人合一’을 거론한 이유는 하늘과 인간의 일치, 자연의 현상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민심에서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미화되고 정당하게 내세워진 학문,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천인합일, 즉 민심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면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정녕 인간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대중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것인지, 온전히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자면 기업의 이윤에만 집중하여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을 계층화·서열화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세계화 시대에 상실해가는 인간의 生命意識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1) 김달진, 『莊子』, 문학동네, 1987년.
- 2) 김송희, 『세계를 향한 한국교육-구 세계화 속의 한국교육』, 생각나눔, 2015년(3판).
- 3) 김송희, 『팍스 아메리카의 침묵』, 생각나눔, 2015년.
- 4) 金松姬, 『『莊子』與漢代文學』,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년.
- 5) 김송희, 『陶淵明 詩를 통해 본 '莊子'의 生命意識』, 『中國文化研究 4』, 中國文化研究學會, 2004년.
- 6) 김충열 지음, 『노장철학강의』, 예문서원, 1993년.
- 7) 김향배 지음, 『莊子哲學精解』, 불광출판부, 2001년.
- 8) 리우샤오간 지음, 최진석 옮김, 『莊子哲學』, 소나무, 2000년.
- 9) 서덕희, 『문화의 차원에 비추어 온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특징』,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3년.
- 10) 서창록, 『협력과 공존의 뉴 패러다임, 글로벌 거버넌스』, 『고대 TODAY』, 2010년 가을, 42호.
- 11) 송홍병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화폐전쟁』, 랜덤하우스, 2008년.
- 12) 안동립 역주, 『莊子』, 현암사, 2006년.
- 13) 엘런 H. 브라운 지음, 이재황 옮김, 『달러』, AK, 2009년, 88쪽 참조.
- 14) 예즈청 지음,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21세기 북스, 2005년.
- 15)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년.
- 16) 李澤厚 주편, 권덕주 공역, 『中國美學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년.
- 17) 임재창, 『신자유주의 등장-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 『Economist』, 2011년.
- 18) 임형백,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비교』, 숙대 다문화 통합연구소, 2009년.
- 19) 陳鼓應 지음, 최진석 옮김, 『老莊新論』, 소나무, 1997년.

- 20) 최종열 외, 『다문화 사회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 사회학회, 2008년.
- 21) 페테르 빈터호프 슈푸르크 지음, 배영자 옮김, 『바벨탑에 갇힌 세계화』, 21세기 북스, 2010년.
- 22) 피터 드리커 지, 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2년.
- 23) 헨리 조지 지음, 김윤상 옮김, 『진보와 빈곤』,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2년.
- 24) 韓非 지, 이운구 옮김, 『韓非子』, 한길사, 2002년.
- 25) 徐復觀, 『中國藝術精神』, 徐復觀先生全集 四, 臺灣中和堂, 1985년.
- 26) 李霞 著, 『生死智慧- 道家生命觀研究』, 人民出版社, 2004년.
- 27) 張雲華 著, 『先秦兩漢道家思想研究』, 吉林教育出版社, 1998년.
- 28) 陶東風 著, 『中國古代心理美學六論』, 百花文藝出版社, 1999년.
- 29) 葉自成 著, 『中國大戰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년.
- 30) Alvin & Heidi Toffler, 『Revolutionary Wealth』, Doubleday, 2006년.
- 31) Amy Chua & Jed Rubenfeld, 『The Triple Package』, Penguin Books, 2013년.
- 32) Chalmers Johnson, 『Blowback-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HOLT, 2004년.
- 33) Jean Lipman Blumen, 『The Allure of Toxic Leaders』, Oxford, 2005년.
- 34) Laden, Anthony Simon and David Owen (eds.),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년.
- 35) Lester C. Thurow, 『Head to Head』,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New York, 1992년.
- 36) Lester C. Thurow, 『The Future of Capitalism』, A Penguin Book, 1996년.
- 37) Noah Feldman, "Orthodox Paradox",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007년 7월 22일.

〈Abstract〉

As 『Zhuangzi』 Leadership Viewed the Issue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Each country gradually has becoming different culture because of the 21st century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in addition, we became a structure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which cannot be done separately from neo-liberalism. It is true that globalization has positive effects for humanity, But it is true that globalization also does raised certain realistic fears about some harm that it brough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 great significance that looking at the issues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from the insight of Chinese classics 『Zhuangzi』.

If so, what kind of leadership shows from the 『Zhuangzi』?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a weak country Song was threatened with powerful nations. Crazy mixed up world at times. How does they survive in the world can be threatened with life? 『Zhuangzi』 is written by using humor or a fable. The message is, Freedom and happiness ought to be restored to public life. In that sense, 『Zhuangzi』 shows how to overcome the tough world with it is exemplifying the theory with a specific example. 『Zhuangzi』 is a book that often seems eccentric and confused, but actually has a very sharp mind. It has amazing insight about contemporary. I think we can say that is a virtues of leadership.

Discussion on multiculturalism in Korea started in side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marriage. However the concept of 21st multiculturalism have changed greatly with rapid free trade and globalization. So, the heart of the problem is not limited on this subject, it is not simple. Excessive competition has destroyed people's moral fibre, just only winner takes all structures. Because free trade made it easier for economically stronger countries to overpower and exploit weaker ones. Only money have become the standard for all of the people. The traditional sentiment(情) of Korean community is gradually disappeared.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has already passed the two-million mark on the back of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and foreign wives for Koreans. Koreans and foreigners associated with the job of conflict will be more serious social problem. 『Zhuangzi』 showed leadership through different eyes, so I wish to discuss issue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through it.

Key Word: 『Zhuangzi』's leadership, life conscious, globalization, multiculturalism, neo-liberalism, issue

190 中國文化研究 第34輯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